Non-Violent Direct Action 비폭력직접행동 NVDA 트레이닝

2014 평화캠프 3일째 20140816 날맹 수영 여옥

오늘하루 아젠다 소개

- 1. 세션6: NVDA소개, 비폭력가이드라인, 모둠 과 의사결정
- 2. 세션7: 평행선게임, NVDA에서의 역할분담, 봉쇄테크닉 연습
- 3. 세션8:역할극,신속한 의사결정 실습,디브 리핑

비폭력직접행동이란?

-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
-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중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기술. 일종의 전투 기술. 소극적이지 않음 (진 샤프)
- 이론: 국가가 가진 권력의 근원을 대중들에게 의존하고 있음. 권력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 님. 만약 어떤 집단이 복종하길 거부하거나 금 지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국가권력은 도전받 거나 약화될 것이다.

좋은 비폭력직접행동은?

- ◎ 재미가 있다
- 문제점,이슈 혹은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알린다
- 인권 또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한다
-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다
- 우리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우리의 가시성을 확대한다
- 해결방안을 창출하고 상상하게 한다
- 영감을 주고 사람을 모으며 열정을 북돋운다
-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점거(사무실, 무기공장, 광장 등)



● 봉쇄(행사장입구, 사무실, 이동통로 등)



◎ 현수막 걸기



● 눕기, 앉기, 서기 등



- 윤리적 소비, 보이콧
- 긍정적 대안(공사말고 농사짓자, 패스트푸드 점 앞에서 채식버거 나눠주기)
- 파업, 협력거부, 병역거부
- 기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비폭력직접행동의 효과

- 비폭력직접행동은 여러 행동유형 중 하나
- 진샤프의 198가지 비폭력행동 중에서 일부
- 집회/시위가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정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직접행동은 우리가 변 화시키고자하는 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방식
- 언제 가장 효과적일까?
- 기존의 절차들이 실패했을때,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때, 막아야할때 등

옆사람과 이야기나누기

-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비폭력직접행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 인상깊었던, 혹은 해보고 싶은 비폭력직접행 동이 있다면?

비폭력스펙트럼

● 비폭력 비무장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 에서 누드시위를 한다

비폭력 스펙트럼

● 집회 현장에서 대치하고있는 경찰에 게 반말+큰소리로 소리지르는 것

비폭력 스펙트럼

가자지구 공습에 반대하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찢고 불태우는 것

비폭력 스펙트럼

 경찰로 인해 건물 안에 고립된 상황에서 진압을 위해 군인까지 동원된다는 상황에서 시위대가 탈출하기 위해 죽 창과 화염병을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

비폭력 가이드라인

-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다양한 사람들, 참여자의 배경과 차이, 예측외의 상황과 여러 위험 수준 등
- 직접행동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 특정 행동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원칙은 이 견을 조율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함에 있어 매 우 유용함

비폭력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사례>
- 2013년 ADEX(무기전시회) 대응 행동원칙
- 우리가 왜 여기에 와서 이 행동을 하는지, 행동의 목표를 항상 상기한다.
-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다
- 경찰이나 경비, 직원과의 소통은 우리가 정한 담당 자만 한다.
- 욕이나 반말을 하지 않는다.
- 행동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와 함께 행동하실 수 없습니다. (즉, 행동원칙에 동의하신 다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비폭력 가이드라인 만들기

- ◎ 조 나누기
- 과거의 경험 떠올려보기
- 본인이 참여해본 캠페인 또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본 경험들
- 그 중에 실패했던 경험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비폭력 가이드라인 만들기

- 실패의 경험 나누기
- 실패한 이유는?
- 실패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폭력 가이드라인 만들기

●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 함께 만들기

휴식

모둠과 의사결정

시브룩-비일-마르코샤임 핵발전소 반대 운동



1976년, 미국 뉴햄프셔 시브룩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 180명의 사람들이 비폭력 트레이닝을 통해 함께 핵발전소 건설을 막는 시민불복종 행동 전개. 1년 뒤에는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수백 개의 모둠을 만들어 건설현장 점거.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크게 촉발시키는 계기가 됨.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모둠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비폭력 운동 사례로 기억됨.

모둠 Affinity Groups

비폭력직접행동을 위해,

5~15명으로 구성되어 행동 준비, 실행, 평가까지 함께 움직이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집단, 평등하고 자율적인 집단

왜 모둠 만드니?

- 공동의 행동과 모두의 온전한 참여
- 탈중심적, 비위계적 의사소통
- 상명하달식 의사소통 지양
- 의사결정 및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성
 원 모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

왜 모둠 만드니?

- 자율성 작은 모둠으로 가깝게 일하는 것은 각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표출하게 하고, 이 를 행동에 반영하여 실현되도록 만들 수 있음
- 상황 변화에 빠르고 창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 헌신 자율적인 결정일 경우, 결정을 이행하는 헌신성 높아짐

왜 모둠 만드니?

- 효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안정적 행동 전, 중간, 후에 사람들이 두려 움을 극복하고 서로 케어할 수 있음
- 프락치예방에도 효과적, 정보가 새어나가도 피해나 위험 최소화

누구와 모둠 만드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 수단에 대해서 도 동의하는 사람들.

더불어 그 이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이 존재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모둠은 어떻게 만드니?

각자 지향하는 운동 철학이나 선호하는 행동 방식에 대해 공유하기

- 토론이나 워크샵
- 트레이닝: 스펙트럼, 역할극 통해

행동 전 모둠에서 논의-공유할 것

- 행동/운동을 통해 각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가 무엇?
- 각자의 정치적 견해
-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지?
- 계획된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뮬레이션
- 서로 다른 구성원을 어떻게 돕고 배려할 수 있는는지

행동 전 모둠에서 논의-공유할 것

- ◉ 행동 방식
- 행동의 수위 어느 정도의 비폭력을 택할 것인지, 연행에 대한 각오의 수준, 어느 시점에서 행동에서 빠질 것인지
- 상대 집단이나 경찰의 공격,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 모둠의 이름 소리쳐 부르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비폭력직접행동은 단순히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 전 과정에 '비폭력'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

따라서 비폭력직접행동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중요!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 필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모든 구성원들이 지지하거나 적어도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결정방법의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만족하거나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님)
- 조직 내 구성원들에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방법으로, 만약 어떤 조직의 결정이 구성원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친다면 구성원 모두는 그 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
- 다수결(ex. 투표) 경우, 경쟁을 불러올 수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사람들은 조직의 결정을 존중하기보다 다수의 결정에 대해 불만 가질 확률 높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구성원 중 일부라도 수용할 수 없는 안건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합의'에 대한 입장들

- 완전한 동의
- 지지: 약간의 의문이 들지만, 결정을 지지할 수 있음
- 수용: 상당한 의문이 들지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음
- 관용: 반대하지만 함께할 수 있음
- 저지: 결코 함께할 수 없으며, 그룹이 결정을 실행하는 것도 가로막을 것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 충분한 시간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경청
- 합의안 도출
- 반대 의견이 있다면 수정안을 만듬
- 큰 반대 의견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제안을 내놓거나, 반대자들을 빼고 행동을 진 행하거나,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음 (폐기)

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인가?

-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 입장이 모두 경청되고 논의될 수 있음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결정에 대해 알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욕구와 모둠이 행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같이 활동해야 한다는 욕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 조직 전체가 행동에 헌신할 수 있음 자신이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나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 조직이 나를 고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구성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을 지지할 수 있음
- 서로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음

대변인회의

- 대규모 액션의 경우, 여러 개의 모둠 사이의 의사결정이 또다시 필요!
- 각 모둠의 대변인을 정한 뒤, 대변인회의를 통해 의사소통

대변인회의 과정

- 각 모둠에서 대변인 정하기
- 대변인 역할의 범위 정하기 (메신저 / 결정권)
- 모둠의 대변인들이 모두 모여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이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로 통합
- 모둠 대변인회의 왔다갔다하며 의견 취합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대변인회의 팁!

대변인이 한 사람일 필요는 없음. 중간에 대변 인 교체하여 여러 사람에게 기회 부여할 수 있음

대변인은 대변인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으며,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의견만 말할 수 있음

신속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비폭력직접행동 시, 시간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생김
 ex. 돌발상황 경찰의 체포 위협, 비밀리에 계획한 우리의 행동이 노출되었을 때
- 빠른 시간 내,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방법 찾 는 것이 목표
- 결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동의 /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결과가 어떻든 함께 책임

신속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가질 수 있는 입장들

- 저지 (A block) 거부, 이 제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 모두가 저지할 권리 있으며 저지가 있을 경우 새로운 제안을 찾아야만 한다.
- 수용 (A stand aside) 제안이 우리 모둠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것 허락할 수 있음. 다만 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 선택 가능
- 우호적인 수정안 (A friendly amendment)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기존 제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정안 제시

신속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1. 진행자 선출

- 상황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브리핑 ("2 분 안에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체포될 것, 1분 안에 결정 내려야 함")

2. 짧은 토론

-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둠에서 짧게 상황에 대해 토론. 진행자 판단 하에 패스 가능

신속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3. 제안

- 구성원들이 각자 제안, 수정안 가능 ("팔을 끼고 연좌하자" -> "그래 그럼 원형으 로 앉자, 그렇게 하면 더 풀기 어려울거야")

신속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 4. 합의
- "원형으로 연좌하는 것 제안되었어. 저지할 사 람?" - 저지가 있다면 새로운 제안 필요
- "수용할 사람?" 수용을 선택한 사람은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ex. "난 지금 연행되면 회사에서 짤릴 지도. 한쪽으로 빠져서 사진기록 담당할께."
- "모두 동의?" 동의하는 사람 "동의!" 외침

질문 있나용?



모둠 나누기

한 모둠 당 6~7명! 각 모둠에서 진행자 뽑기

시나리오 1

우리는 광화문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습을 규탄하는 행진을 기획하고 진행하고있다.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상징하는 '관'을 들고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행진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갑자기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 물품이며 혐오감을 조장하는 물품이라고 행진을 막아선다. 경찰을 물리력으로 뚫고 행진을 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고, 행진 참여자들은 우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한 모둠?

합의하지 못한 모둠?

시나리오 2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족대책위가 국회 본청 앞에서 30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꽉 막힌 특별법 합의를 규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국회 본청에 대형 현수막을 걸려고 한다. 어디서 현수막을 내리고 몰래 도망칠 수 있는지 사전 답사와 행동 준비를 완벽하게 모두 마쳤고, 모든 계획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동에 착수하기 30분 전, 정보가 새어나가 국회 경위에게 우리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한 모둠?

합의하지 못한 모둠?

디브리핑

- 어떻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
-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기회가 충분했는가?
-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
- 인상 깊었던 점은?

세션7_비폭력직접행동 준비하기

- 평행선게임(Hassle Line)
- 직접행동 준비 과정에서 고려할 점과 다양한 역할들
- 봉쇄테크닉 소개 및 연습

평행선게임 Hassle Line

● 이 게임의 의도

- A: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법 일인시위를 하는 중.
 - B: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특례입학이니 보상이니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먼저 기자회견하면 순수성을 믿겠다. 특별법 이미 합의 끝난거 왜 이제 와서 다시 협상하자고 하느냐"며 딴지를 거는 40대 남성.

디브리핑

- (A로서/B로서/관찰자로서) 무엇/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상대에게 먹혔는지? 도움이 안 된 건 무엇이었는지?
- 어떤 느낌이었는지?
- 배운 점은?

해슬라인Hassle Line

 A: 무기거래로 이득을 보는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출근길 국민연금공단 건물 입구를 점거한 상황. 점거현장 앞 쪽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직원들에게 리플렛을 돌 리는 역할.

B: 출근을 위해 나왔는데 점거 때문에 입구가 막혀있자 A에게 화를 내기 시작함.

디브리핑

- (A로서/B로서/관찰자로서) 무엇/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상대에게 먹혔는지? 도움이 안 된 건 무엇이었는지?
- 어떤 느낌이었는지?
- 배운 점은?

해슬라인Hassle Line

(앞서 국민연금공단 점거 상황 이어서)
 A: 이 행동에 참여한 활동가.
 B: 같이 참여한 동료 활동가. A의 신경을 거슬리는(통화를 계속 하거나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가 B에게 말을 시작한다.

디브리핑

- (A로서/B로서/관찰자로서) 무엇/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상대에게 먹혔는지? 도움이 안 된 건 무엇이었는지?
- 어떤 느낌이었는지?
- 배운 점은?

행동계획하기



한 행

·이나 에서 지금 :과를

창의

- 1.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 2.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기업? 거리의 시민들?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기업의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리플렛을 돌리는 게 효과적이겠는가 아니면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있는 자격을 얻어 거기서 발언을 직접 하는게 더 효과적이겠는가?

3. 일회성 행동인가 아니면 이어지는 일련의 캠페인 속에 기획된 행동인가? 일회성 행동이라면 아주 집중해서 선명한 메시지와 타겟을 정해야한다. 일련의 캠페인 속에 위치한 행동이라면 매 행동마다 누구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를 바꿔가는 전략을 세울 수도있다.

- 4. 이 행동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인가? 관련한 새 뉴스가 나오는 시기인가? 관련 행 사가 있는가? 일간지나 주간지의 발행 데드 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주말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행동하는 것은 누구의 관심 도 받지 못할 것이다.
- 5.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이 행동에 참여할 것 같은지?

6. 이 행동의 방식은 목적과 일치하는가? 이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에 누군가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는가? 찜찜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직접행동은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한 방법일뿐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행동의 방식이 그 행동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방식만을 기억하기도 한다.

행동 준비단계에서부터 행동 이후까지의 역할 분담

→ 각의 행동들은 다양한 종류의 작업들을 수반한다. 그 중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예: 거리를 점거한 시위대나 언론담당자), 한편으론 덜 드러나거나 아예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역할이라도 빠지면 효과적 인 행동이 불가능해지기에 모든 역할들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동 준비과정에서의 역할들

- 행동 총괄자(코디네이터)
- 재정담당자
- 연구자
- 장소 관련 담담자
- 대외협력 담당자(다른 단체와의 소통 및 조직)
- 물품 및 장비 담당자
- 모임 진행자
- 선전물 관련 담당자
- 언론 담당자 (76쪽 '언론의 역할' 참조)
- 방송장비 담당자
- 글쓰기 담당자

행동 현장에서의 역할들

- 연행을 각오한 사람 (시민불복종 행위를 펼치는)
-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
- 경찰과 소통 및 협상을 담당할 사람
- 행사진행 및 모니터 요원
- 경찰의 주의를 흐트리는 역할을 담당할 팀

- 언론 담당 대변인
- 언론 관련 실무팀
- 소통 담당팀
- 시위대/피켓팅을 하는 사람/구호를 외치는 사람/노래를
- 리플렛 나눠주는 사람
- 비디오 촬영자
- 사진기사
- 의료지원팀
- 법률감시단
- 수감자 지원팀

행동 이후의 역할들

- 법률적 지원. (141쪽 '법률적 지원' 장 참조.)
- 변호사
- 행동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문서로 만들 사람. (87쪽 '친 참조)
- 비용 마련 담당자
- 대변인
- 탄원서 작성, 언론 기고 역할 담당자
 - * 인용 출처: Rant Collective (www.rantcollective.net)

법률적 지원

사법체계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활동7 은 행동에서 '법률 지원팀'은 언제나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 의퇴에 과하 조어들은 역구에 기바운 등 '황도가 변룡지의

- 모든 역할은 중요하다. 연행을 각오하고 전면에 등장하는 직접행동 당사자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 역할은 행동의 계획과 맥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이동수단: 차량 운전 /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연행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
- 경찰서 지원: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가 연행상황 발생시 연행자 명단과 위치 파악. 변호사연결해주는 역할. 연행된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
- 법률감시단: 경찰들의 불법행위 감시. 녹화 및 기록. 연행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음

● 경찰담당자(Police Liaison): 경찰과 밀당하 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막기 위해 관리자와 쑈 부를 잘 칠 수 있는 사람. 시위대로부터 결정 을 위임받은 건 아니므로 경찰과 시위대 사이 에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 필요. 시위대랑 얘기 해보겠다고 하면서 경찰의 대응을 지연시키 는 요령도 필요함. 법률감시단과 마찬가지로 연행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 언론 담당: 상황실에 한명 현장에 한명 이렇게 둘 수도 있음.
- 의료진: 기본적인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면 더 좋음. 최루탄이 사용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대처요령이 있는 사람으로.
- 행동 지원자: 연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 옆에서 물이나 음식을 전해주는 이. 행동의 반경이 넓을 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연행될 가능성을 염 두에 두되 최대한 연행되지 않고 행동 당사자를 도울 수 있도록.
- ▶ 마지막으로 행동 참여자.

소그룹 토론

- 자신이 그룹으로/다른 사람들과 직접행동에 참여했던 때, 행동 전 그리고 행동 중에 어떤 역할들을 준비했었는지?
- 어떤 준비가 행동에 효과적이었는지/혹은 어떤 준비를 더 했더라면 행동이 잘 전개됐을 것 같은지?

디브리핑

- 토론 어땠는지? 새로 배운 점이 있는지?
- 행동 준비와 관련한 소그룹 토론에서 나온 이 야기 중 전체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

행동에서 몸을 보호하는 팁

- 직접행동의 과정은 늘 예측과는 다른 일이 벌어 질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것들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이인을 할 때 입을 옷은? 아스팔트에 쓸릴지 모르니 너무 얇은 옷이나 살이 드러날 수 있는 옷 은 피하는 센스! (연행되서 벨트를 뺏겼다가 바지 가 흘러내릴지도 모르니..)
- 여러 겹의 옷으로 추위를 대비하자. 더울 때 벗으면 되지만 추울 때 옷이 없으면 방도가 없다. 등에 메는 가방도 몸을 보호하는 완충 수단이 될 수있다.

행동에서 몸을 보호하는 팁

- 연행시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장신구는 빼놓고 가기. 손톱은 자르는게 좋을까? 연행될 때 머리채 끌려가지 않게 대비하기.
- 물과 간식. 권리카드(연행 시 대처요령, 변호사 전화번호가 나와있는). 약간의 잔돈(전화나 교통비), 벌레퇴치제, 탐폰

행동 나갈 때 절대 가져가지 말 것

• 공격용 무기로 트집잡힐 소지가 있는 것들(칼이나 드라이버 등. 물병도 유리병보단 플라스틱), 술? 신용카드. 신분증(외국인이거나 차량운전역할을 한게 아니라면). 연락처가 들어있는 핸드폰(수첩)

봉쇄기술

- 여기서 설명할 방법들의 목적은 행동의 현장에서 최대한 더 버팀으로서 시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 몸과 중력을 활용한 수동적 저항으로 경찰이 연행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다음 중 봉쇄를 가장 오래 지속



연행의 순간 고려할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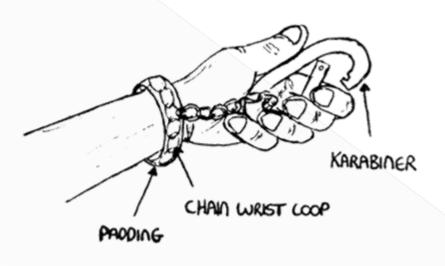
수동적 저항 vs 적극적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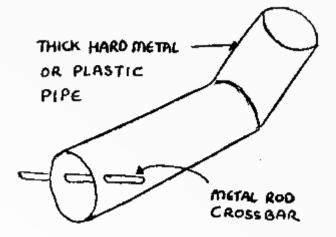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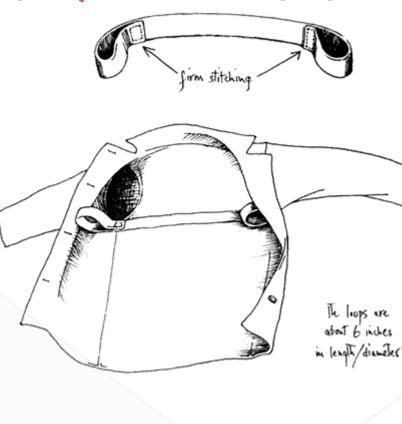
봉쇄/연좌에 유용한 도구 -배너와 수갑



안전벨트, 자물쇠, 파이프, 순간접착제







자전거







봉쇄 연습!

쉬는 시간

두려움 극복하기!

집단 역할극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한 달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2천여 명 육박

엘빗시스템 점거



무인기 생산하는 이스라엘 군수업체 엘빗시스템의 영국 공장 (드론 엔진 제작)을 이스라엘과 무기거래 중단, 공장 폐쇄를 요구하며 점거 중인 영국 평화 활동가들!





"이스라엘은 홀로 침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부들과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 다. 정부가 범죄를 지원한다면 풀뿌리 운동은 직접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에 보고된 무기수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이스라엘로 약 335억 원(약 3천만 달러) 가량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424억 원(약 4천만 달러)의무기를 수입했다.

지난 7/23 제21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 기권했다. (미국은 아예 반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29, 반대 1, 기권 17로 최종 채택됐다.

시나리오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에서 이스라엘에 확산탄을 판매하려고 한다. 이 확산탄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살상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국산 확산탄으로 인해 죽거나 다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화 본사와 방위사업청 앞 시위, 국회토론회, 언론기고, 온라인액션 등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항의했지만 확산탄 판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비폭력직접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한화 내부 관계자의 공익제보로 한화와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가무기거래 계약 체결을 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알게 되었다. 직접행동을 통해 이 계약을 막아 무기수출을 시급히 저지하고, 이 상황을 언론을 통해 극적으로 사회에 알려내야 한다.

비폭력직접행동의 가이드라인 정하기

팀 나누기 시위대 / 경찰

각자의 역할 및 목표

- 시위대: 어떻게든 계약 체결을 막는 것
- 한화 경비원: 시위대의 방해를 막고 계약 체결을 이루는 것, 안그럼 짤림 (용석)
- 경찰: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것 (지휘관:여옥)
- 이스라엘 관계자: 무사히 건물에 들어가서 서명하는 것, 한국말 거의못함 (경수)
-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언론 (오리)
- 우호적인 진보언론 (아침)

비폭력직접행동 준비

- 행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 모둠 나눌지, 말지 / 어떻게 의사결정?
- 역할분담 (기록 담당, 언론 담당, 경찰 담당 등)
- 행동의 수위는?
- 상대의 공격이나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긴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가?



디브리핑

- 어땠는가? 행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
- 행동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달성하지 못했나?
- 참여자들은 목표/전략/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는가?
- 가이드라인과 규칙은 잘 지켜졌는가?
- 준비과정은 적절했는가?
- 계획한 행동방식은 적절했는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 의사결정 과정은 어땠나?
- 개인이 느낀 긴장, 혼란, 두려움은?
- 무엇이 이 행동을 비폭력적으로 만들었는가?
- 어떻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시위대가 어떻게 보였나?

- 경찰 / 한화 직원 / 두 가지 언론
- 시위대가 어떻게 보였나?
- 시위대의 메시지가 이해되는가?
- 시위대가 폭력적 / 비폭력적이었다면 왜 그랬 나?
- 만약내가시위대라면,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까?

디브리핑 내용 반영하여 다시 해보기



미안하다, 한 번 더 한다!

디브리핑

- 다시 해보니 어땠는가?
-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는가?
- 의사결정 과정은 어땠나?
- 행동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달성하지 못했나?
- 참여자들은 목표/전략/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는가?
- 가이드라인과 규칙은 잘 지켜졌는가?
- 준비과정은 적절했는가?
- 계획한 행동방식은 적절했는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 개인이 느낀 긴장, 혼란, 두려움은?
- 무엇이 이 행동을 비폭력적으로 만들었는가?

시위대가 어떻게 보였나?

- 경찰 / 한화 직원 / 두 가지 언론
- 시위대가 어떻게 보였나?
- 시위대의 메시지가 이해되는가?
- 시위대가 폭력적 / 비폭력적이었다면 왜 그랬 나?
- 만약 내가 시위대라면,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까?

하루 평가!